

파생접환사 ge-+-e

조 건(성균관대)

1. 서론

“조어론은 새로운 낱말을 만들 때에 작용하는 법칙성, 상응하는 모델을 연구하며 또한 ‘완성된’ 낱말의 구조분석을 연구한다”¹⁾라고 Fleischer가 말한 바와 같이 조어는 새로운 어휘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3가지 가능성이 있으니, 기존 형태소들 및 어휘들의 조합, 품사전환(Konversion)과 단축이 그것이다. 따라서 변화형태소에 의한 어형변화, 의성어와 같은 창조어 및 외국어휘의 차용은 조어에서 제외된다.

기존성분들의 조합에 의한 조어는 그 성분들의 의미조합과 관련하여 동기성 유무 및 정도에 따라 Fleischer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구별하고 있다:

„Eine Großstadt ist immer noch eine große Stadt, eine Großmutter zwar keine große Mutter, aber doch eine Mutter, ein Augenblick hat aber weder mit Blick noch mit Auge etwas zu tun“²⁾ 즉 공식적으로 볼 경우 Großstadt는 여전히 große Stadt이고, Großmutter는 비록 große Mutter는 아니지만 Mutter인데, 그러나 Augenblick는 Blick와도 Auge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Fleischer의 예들이 보여주는 것은 조어에서 각각 Großstadt는 동기화(Motivierung)에, Großmutter는 부분동기화에, Augenblick는 탈동기화 또는 관용어화에 속한다는 것이다.

1) Fleischer 1975. S.19: Die Wortbildungslehre untersucht einmal die bei der Bildung eines neuen Wortes wirkenden Gesetzmäßigkeiten, die entsprechenden Modelle, und sie beschäftigt sich auch mit der Analyse der Struktur eines ‘fertigen’ Wortes.

2) Fleischer 1975, S.13.

어휘들은 보통 문장분석의 최소단위이며, 형태소는 어휘분석의 최소단위로 간주될 수 있는데, 한 어휘의 전형적인 직접성분 분석은 그 어휘의 직접성분과 간접성분들의 서열화를 만들고 그 맨 아래는 형태소에서 끝난다. 따라서 형태소는 직접성분 분석(IC-Analyse)의 마지막 성분인 것이며, 그 종류에는 기본형태소, 조어형태소와 변화형태소가 있지만 복합조어를 분석하여 그 복합어의 조어종류를 가리려면 분석대상의 복합어에서 제1단계 직접성분 분석으로 구별한다. 그 직접성분이 기본형태소나 어휘로 나누어지면 합성어이고, 두 직접성분의 하나가 조어형태소 즉 조어접사이면 파생어로 간주된다.

이때 파생어(Derivation, Ableitung)에 대한 범위가 학자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는 경우가 있는 바, 접미사에 의한 조어만 파생어로 간주하고 접두사에 의한 조어는 접두사조어로 독립시키는 경우와 조어접사에 의한 조어를 모두 파생어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Fleischer(1975)는 접두사조어를 합성어와 더불어 독립된 조어유형으로 보아 파생어는 접미사조어만 간주하였으며, Erben(1983)은 파생어속에 접두파생어, 접미파생어, 조합된 파생어를 포함시켰다. 근래에는 이 후자의 개념이 일반적 현상으로 보이는데, Fleischer도 Barz와의 공저(1995)에서 파생어(Derivation)에 접미사조어와 접두사조어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다.³⁾ Motsch도 그의 저서에서 „Derivationen, d.h., Suffigierungen und Präfigierungen sind dadurch gekennzeichnet, dass das semantische Muster eine Variable enthält.“⁴⁾라고 함으로써 파생어에 접미사조어와 접두사조어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연구되는 것은 ge- + -e에 의한 조어임으로 결국 접두사와 접미사가 기저성분의 전후에서 결합한 파생명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록 파생형태소(Derivationsmorphem)를 접두사, 접미사와 접환사(Zirkumfix)로 구별하지만⁵⁾ 접환사는 독자적 접사종류라기 보다는 기존해 있는 접두사와 접

3) Fleischer/Barz 1995. S.200.

4) W. Motsch 1999, S.4.

5) ebd. S.12.

미사가 동시에 조합한 접사로 보며, 이 접환사의 기능 및 의미와 기저성분의 종류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2. 본론

2.1. ge- + -e에 의한 파생명사

Fleischer⁶⁾는 조어모델을 합성어, 파생어, 접두사조어로 분류하고, 파생은 원칙적으로 접두사에 의하지 않고 접미사에 의해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파생요소에는 또하나의 접두사가 연결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로 동사의 조어에서 보게 된다고 했으며, 그러나 명사의 조어에서도 특히 ge-+-e 조합이 불연속 구성성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보기: red-en → Ge-red-e, singen → Ge-sing-e), 이때 끝의 -e가 없는 경우는 불연속 구성성분을 ge-+-∅로 보고 내포적 파생어(implizite Ableitung)에 연결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파생어의 기준접사는 접미사인 것이다.

Götze/Hess-Lüttich는 그들의 Knaurs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⁷⁾에서 파생명사를 접두사, 접미사, 접두접미사에 의한 조어로 간주했는데 접두사조어에 ge-가 속하고 접두사+접미사조어에 ge- + -e가 속하고 있다. 접두사에 의한 명사형성에 속한 ge-의 예는 Gebäck, Gefäß, Gefühl, Gesang이고 접두사+접미사에 의한 명사형성에 속한 ge- + -e의 예는 Gebäude, Gelände, Gewebe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파생어를 접사조어로 보고 접사조어는 접두사조어와 접미사조어로 분리되며 접두사+접미사 공동형성은 접미사조어의 특수형식으로 보고 있다⁸⁾.

Duden-Grammatik(1998)의 조어종류에 파생어 개념은 접미사조어를 뜻하고 조합적 파생어는 etw. beaufsichtigen, verunreinigen, bejahen,

6) Fleischer 1975, S.185f.

7) Götze/Hess-Lüttich 1988, S.305f.

8) ebd. S.298.

verneinen; jmdn. ermuntern, aufmuntern과 같은 경우로 조어는 접두사 be-, ver-, er- 및 반접두사 auf-와 접미사 -ig(en) 또는 단순히 품사전환의 수단으로 -(e)n과 조합하여(그런 점에서 접환사에 의해 생긴다⁹⁾)라고 하여 접미사조어에 접두사가 조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접두사조어는 낱선 표현으로 첨가조어(Zusatzbildung)란 개념으로 파생어와 합성어와 함께 독립된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Fleischer(1975)의 분류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P. Müller는 그의 파생명사에 관한 저서에서 파생명사 현상은 유접사나 무접사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유접사의 경우는 접두사 파생어(Sitte → Unsitte), 접미사 파생어(frei → Freiheit) 그리고 접두접미사 파생어(singen → Gesänge)로 구분했다. 다시 말하면 접사 파생어의 하위구분은 접두사조어, 접미사조어, 접두접미사조어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¹⁰⁾.

이와 더불어 조어형태소없이 즉 접사없는 형식으로 명사를 파생시키는 가능성이 있는 바, 이 유형의 특징은 어휘의 파생이 조어형태소는 없으나 품사특유의 사전형식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그 결과 무접사 파생유형에 속하는 것은 예를 들면 형용사에서 파생하는 동사(rot → rötten), 명사에서 파생하는 동사(Tischler → tischlern), 동사에서 파생하는 명사(reiten → Ritt; besuchen → Besuch)등이 그것이다¹¹⁾. 접두사 ge- 와 접미사 -(e)가 조합하여 형성되는 파생명사에 있어서 접두사는 항상 명시적인데 반하여, 접미사는 -∅ 와 -e로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으로 정돈하기가 어렵게 보인다.

Fleischer/Barz(1995)의 경우 Fleischer(1975)와는 달리 접두사 ge- 모델과 조합적 파생모델 ge- + -(e)로 나누어 보고 있다. ge- 모델은 다만 명사에서 파생되는 조어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조합적 파생어에 배열시킬 수 있다는 것인 바, -j-접미사가 그것인데 그 때문에

9) Duden-Grammatik 1998, S.435.

10) Müller, P. 1993, S.36.

11) ebd. S.39.

항상 변모음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비교: ahd. gibirgi, gifildi 'Gefild'). 그러나 -j-접미사는 변모음 영향을 제외하고는 사라져 버렸으므로 공시적으로는 순수한 접두사조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Geäst, Gedärm, Gestein, Gestirn 등¹²⁾.

이것과는 달리 조합적 파생어는 접두사와 접미사의 조합(Ge-sing-e, ver-unrein-ig-en)으로¹³⁾ 명사의 영역에서는 접두사 ge-와의 조합에만 국한하지만, 불연속 직접성분으로서의 조합 ge- + -e에 의한 동사파생명사의 모델은 생산적이며(보기: fragen - Gefrage), -e가 빠질 수 있는 것은 이차적 요인들에 의한 것이다.

접두사 ge-를 가진 파생명사의 두 변이체에 접미사 없는 것과 있는 것의 비율은 약 2 : 1이라고 한다¹⁴⁾. 따라서 접미사 없는 것이 형태론적으로 주된 유형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e가 있는 것이 무형의 -∅보다는 무게가 있다는 것이 실질적이며, 다만 -e가 있는 유형은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나는지가 관심사일 것인데, Wellmann에 의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¹⁵⁾.

접미사는 기저성분의 장모음 다음에 더 빈번히 나타나고 (보기: Ge-hohl-e, Ge-hust-e), 개별적으로 이중모음 다음에도 나타난다(보기: Ge-kneif-e, Ge-saus-e). 짧은 어간모음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만 나타난다: 파찰음 다음(보기: Ge-flitz-e, Ge-kratz-e, Ge-klopf-e), 비음과 비음결합 다음에 자주 그리고 -nd-, -ng-/ŋ/ 다음에 규칙적으로 (보기: Ge-summ-e, Ge-wind-e, Ge-dräng-e), 유활음과 유활음결합 다음에 (보기: Ge-zerr-e, Ge-folg-e) 나타난다.

이에 반하여 -e가 빠지는 경우는 음운상의 이유로 기저성분의 무강세 -e-다음에: Gewimmel, Gezappel, Gestöber;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 구별로: Geschrei - Geschreie, Gebrüll - Gebrülle, Gebell - Gebelle를 제

12) Fleischer/Barz 1995, S.200.

13) ebd. S.46.

14) Wellmann 1975, S.34.

15) ebd. S.34.

시하는 정도이다.¹⁶⁾

그밖에도 드물게는 처음접미사와 기저성분의 어간모음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Gebäude, Gebirge 등 이상과 같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본 결과 학자들마다 파생현상에 대한 견해는 차이가 나고 있지만 결국 파생현상은 접두사조어와 접미사조어 그리고 접두사와 접미사의 조합인 접환사조어를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2. ge-+-e 파생명사의 기능 및 의미

접환사에 의한 파생어는 현대도이치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파생동사의 경우:

be-+-ig: beabsichtigen, bereinigen, beschönigen, bevollmächtigen;

파생형용사의 경우:

ge-+-ig: geläufig;

be-+-t: bebrillter Herr, bebildertes Buch, bemooster Stein, bekiester Weg;

ge-+-t: gestreifter Stoff, genarbttes Leder, geblümt, gezackt;

ver-+-t: verrunzelte Person, verkatert;

zer-+-t: zerfurchtes Gesicht, zernarbt;¹⁷⁾

파생명사의 경우:

ge-+-e: Gefolge, Gewirr(e)

여기서 연구되는 것은 파생명사의 경우로 이 파생명사에 나타나는 접환사와 결합하는 기저성분의 품사는 동사와 명사이며, 따라서 우선 기저성분의 품사별로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와 명사에서 파생된 명사를 구분하고 그

16) 비교: Duden-Grammatik 1998, S.503. 이와 비교할만한 것으로 명사에서 파생한 집합명사조어의 경우 오늘날의 도이치어에서는 아직 몇 개만이 접미사 -e를 나타내고 (예: Ge-länd-e), 그와 반면에 변모음은 아직도 거의 규칙적이다(예: Ge-sträuch).

17) be-+-t, ge-+-t, ver-+-t, zer-+-t는 외형적으로 과거분사처럼 보이거나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고 명사에서 파생된 것이다.

다음에 이들 기저성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첨가되는 기능 및 의미에 따라 분류한다. 조어는 기존의 언어성분들이 조합하여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합된 성분들의 의미까지도 조합되는 것이지만(동기화) 언어의 발달 내지 세월의 흐름속에서 복합어의 의미가 기저성분의 의미와 같거나 또는 변화되거나 기저성분의 소멸로 인하여 의미의 조합을 더 이상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형태면으로는 복합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단순어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관용어화 내지는 어휘화(Lexikalisierung)라고 하는 파생어도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접환사 ge-+-(e)에 의한 파생명사의 경우도 상당수의 관용어를 가지게 되며 대부분 다음의 각 분류 유형에서 시작하여 관용어화되는 것이 많으므로 해당유형의 마지막에 제시한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동일한 파생어가 서로 다른 유형들에 속할 수도 있으며 그런 경우는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

2.2.1.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Gebell(e), Gefrage, Gezappel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파생명사는 접두사 ge-와 접미사 -e 또는 -∅에 의해, 다시 말해서 두 변이형 ge-+-e와 ge-+-∅의 불연속 형태소에 의해 기저동사를 명사화하는 조어수단이다. 이 파생접환사에 의한 파생명사는 그 기능과 의미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추상명사:

이 유형은 기저성분인 동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의 행위 및 태도를 나타내는데, 특히 인간의 활동 또는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가 기저성분으로 많이 등장한다: Geschrei, Gesaufe, Gelüge, Gequatsche, Gejammere, Angebrülle, Herumgelaufe. 그러나 이런 조어는 das Geknalte der Dielen, das Gepoltere der Räder에서 볼 수 있듯이 꼭 인간행위자를 가진 동사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또한 종종은 반복적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수적

으로 대개 원치않는 혹은 보통에서 벗어나는 부정적 평가를 가질 수도 있다. 예컨대 Gebell 'die Tatsache, dass etw. wie ein Hund wiederholt bellt', Gefrage 'die Tatsache, dass jemand ständig fragt'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반복이나 이와 더불어 폼어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¹⁸⁾

행위 및 태도:

Du hättest damals einem Mann begegnen sollen, der kein falsches Gewissen hat und doch viel **Geduld**, (Stiller 149)

Die zweite Kanone ging bei einem **Gefecht** im Chenab River verloren.
(Patient 132)

Zuweilen ... habe ich das **Gefühl**, daß ich all dies nur träumte;
(Stiller 20)

반복 및 지속성:

Das **Geflatter**, als sie um ihn herum mit den Flügeln schlugen.
(Patient 318)

Es gab das Liebes**geflüster** im Separée. (Patient 264)

Sibylle legte ihren Kopf auf den Ellbogen, ..., hörte das **Geglucks** unter dem Boot, wenn es in den Wellen schaukelte, (Stiller 283)

Nach einigem fast knabenhaftem **Gekreisch** wegen der plötzlichen Kälte des Wassers ... sind alle sehr still, (Stiller 34)

Wir waren mitten im **Gemurmel** der Brunnen. (Patient 283)

Meine Frau hatte das **Gepolter** in der Nacht gehört. (Stiller 435)

Als er das **Geräusch** hörte, ... (Patient 125)

18) 참조: Motsch 1999, S.332. 형태적 면에서 접환사의 접미사 -e는 탈락할 수 있고, 지지성분이 분리동사인 경우도 있으며 이때 동사의 분리전철은 파생접두사 ge-에 선행하고(보기: Aufgebrause, Umgebaue), 비분리동사에는 물론 ge-가 쓰이지 않는다(보기: das Berede, Enthülle, Übersetze).

er ... streckte sich eine Zigarette an und rauchte in das **Gestöber** hinaus; seine Lippen zitterten, (Stiller 143)

Gestern sind sie dazu übergegangen, mich mit dem **Gestotter** eines Preßluftbohrers zu unterhalten;(Stiller 16)

Das **Gezerre** um die durch die BSE-Krise anfallenden Kosten für Bund und Länder dauert seit Wochen an.(SZ online 010312, Aktuelles Lexikon)

Alles ... sind bellende Hunde und Vogel**gezwitscher** ... (Patient 300)
Gebrause, Gedröhn, Geheul, Gemetzel, Geschnaube, Getöse, Gewoge.

부정적 평가:

Stiller kümmerte sich nicht darum, gefiel sich in geistreichem **Geflunker**, wobei er sich ... an Frau Julika richtete. (Stiller 401)

... konnte er nicht umhin, dem **Gejammer** der Konkurrenz nachzugeben. (Stiller 39)

Sie hörte weder mein **Geplauder** noch meine Bemühung, darüber hinaus zu einem rechten Gespräch zu kommen.(Stiller 403)

denn jeden Abend gab es einfach ein **Gerede**, wovon Rip so wenig verstand wie sein Hund, (Stiller 72)

Es gibt Tage, wenn ich heimkomme nach trockenem **Geschreibe**, ...
(Patient 264)

Er kann es nicht nicht mehr hören, sagt er. dieses **Geschwätz** von lauter Ehrenmännern.(Stiller 24)

Er legte das Trockentuch weg, um mit der freien Hand über ihr Haar zu streichen, als wäre ihr Leben zu retten mit solchen zärtlichen **Getue**.
(Stiller 95)

Gebell, Gefluche, Gehüpfе, Geklapper, Geklopfe, Gelaufe, Gepfeife, Geprahle, Getuschel, Gewinsel.

관용어화:

Er war ein kluger Mann, und das **Gerücht**, daß er Selbstmord begangen habe, beschäftigt mich sehr.(Stiller 84) 여기서 Gerücht는 rufen의 파생명사로 원래는 Gerufe가 되겠으나 저지도이치 geruchte의 영향을 받아 치음접미사를 가진 것이다.

Man hört den **Gesang**. (Patient 293) 기저성분 Sang과 동일한 의미.

Die Lehre weist auf Zustände, wo das Handwerk noch nicht zum **Gewerbe** geworden ist.(Edda 169)

Gefahr, Geschick

2) 결과 및 산물명사:

기저성분인 동사에서 의미하고 있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거나 그 산물을 나타내는 바, 예컨대 Geflecht, Gewebe가 'etw., das geflochten, gewebt worden ist'로 풀이되는데서도 알 수 있으며, 이들 파생명사들은 das Gedicht - das Gedichtete; das Gemisch - das Gemischte에서 처럼 형태론적으로 명사화된 과거분사와 근사한 경우도 있고, 거의 단순동사와 결합하며 이러한 유형은 오늘날에는 거의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한다¹⁹⁾.

Er trank den Tee im Stehen, aß ihr **Gebäck** dazu, (Stiller 283)

Je tiefer man kommt, um so wunderbarer ... sind die **Gebilde**, die von der Decke hangen wie ... (Stiller 164)

Vielleicht in einem **Gemälde**, das er irgendwo im letzten Jahr gesehen hatte. (Patient 117)

Um diese Stunde ist der **Geruch** von Heu überall. (Patient 101)

Wie stets sind Bücher mystische **Geschöpfe** für ihn.(Patient 92)

Du! In diesem Sinne hast du sie geliebt, gewiß, bis zum eignen Verbluten. Sie als dein **Geschöpf**. (Stiller 423)

Ein zweites Versuch, ein irdisches Scheltgespräch im göttlichen

19) 비교: Wellmann: a.a.O. S.426

Gewande nachzubilden.(Edda 104)

Wie das **Gewebe** fortschreitet, bestimmt es gleichzeitig den Verlauf der ... Schlacht.(Edda 149)

nahe der tropischen Zone, ..., die ich nicht leiden kann mit ihrem schwülen **Gewucher**, mit ihren üppigen Schmetterlingen,(Stiller 37)

Gebinde, Gebräu, Gedanke, Gefüge, Gemenge, Gepräge, Gesteck, Gestreu, Gewirk(e), (치음접미사를 가진) Gebäude

관용어화:

Ich werde dich in dem **Gemach**, in dem wir schlafen, hinter die geöffneten Tür stellen. (Patient 253)

Fortan mußte Sibylle ihren kleinen Hannes auf die Knie nehmen, damit er nicht zwischen den **Gerüsten** hinunterfiele.

(Stiller 287)

er nörgelte am Julika herum, weil sie, wenn sie vom Tisch in die Küche ging, nicht auf dem gleichen Gang etwas **Geschirr** hinaustrug,(Stiller 92)

... redete er ... über das klassische **Gesetz** von der Addition und Substraktion der Geschwindigkeit, (Stiller 118)

Sie hatte ihr **Hirngespinst** ... völlig vergessen, als ...(Stiller 310)

Gewicht, (치음접미사를 가진) Getreide, Geschichte.

3) 사람 및 사물명사:

기저성분인 동사에서 의미하고 있는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집단이거나 그 행위를 하는 사물을 나타내는 바, 예를 들어 Gespieler 'derjenige, der mit jemandem spielt'; Gewimmel 'Menge, die wimmelt'; Gewächs 'etw., das wächst/gewachsen ist'에서 살펴볼 수 있다.²⁰⁾

20) 비교: ebd. S.50.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

Johann Friedrich mit seinem **Gefolge** wird von ungarischen und neapo- litanischen Reitern gestellt. (Zeit 970425.46)

Freiheit für 400 inhafterte Gesinnungsgenossen und freies **Geleit** in den unwegbaren Urwald des peruanischen Hochlandes. (Zeit 970425.1)

In seiner Villa in Kalifornien werden ihn sieben blonde **Gespielinnen** zart wecken. (Spiegel online 010405, Panorama)

-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

Sibylle zeigte ihm die Bezirke, deren Namen er kannte: Brooklyn hinter einem **Gehänge** von Brücken, Staten Island, Harem.(Stiller 315)

und indem ich mich wieder an das kollernde **Geröll** erinnerte, das in immer tieferen Tiefen verhallt war, wagte ich auch nicht mehr rückwärts zu gehen;(Stiller 160)

Jeder Ort und jede Person war ein **Geschenk** für mich. (Patient 279)

Er atmete dem Dampf des **Getränks** ein. (Patient 212)

blühend von Orchideen, die hier wie Unkraut wuchern, doch blühend auch von nützlichen **Gewächsen**: Dattelpalmen, Feigen...(Stiller 37)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Gedränge 'Menge, die sich (an einem Ort) drängt'; Geläut 'etw., das läutet (die Glocken)에서 처럼 일단 사람이나 사물로 풀이될 수 있으나 이 조어들은 문맥에 따라서 추상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밖에 이동하는 군중이나 집단의 명칭에도 사용되고(Gedränge, Gefolge, Gewimmel), 대상의 명칭에도 사용된다(Geläut).²¹⁾

비교:

Ich schob mich durch das ameisenhafte **Gewimmel** am Times

21) 비교: ebd. S.361.

Squares:(Stiller 338)

Hin und wieder das verwehte **Gewimmel** einer Glocke,
(Stiller 320)

앞의 Gewimmel은 군중을 뜻하지만, 뒤의 것은 뒤섞임을 뜻한다.
Das **Geläute** ihres Münsters ..., das zweimal täglich losbricht,
(Stiller 21)

Ich streichle es, da man ohnehin, wie gesagt, des fürchter-
lichen **Geläutes** wegen nicht sprechen kann. (Stiller 366)

앞의 Geläute는 사물명칭으로 die läutende Glocke를 뜻하지만,
뒤의 것은 종소리를 뜻한다.

관용어화:

denn die Asen wissen, wen sie von allen Wesen zum **Gelage**
laden sollen. (Edda 95) UDW에 의하면 Gelage는 원래 (zum
Essen und Trinken) Zusammengelegtes이다.

Bis dahin war man davon ausgegangen, daß dieses Gewürm und
Geschmeiß aus Dreck entstehe, anders gesagt: der Urzeugung aus
Schlamm und Unrat zu verdanken sei. (Zeit 970425.73)

Brennen werd ich ein bös **Geschwür**. (Edda 354)

Sibylle ... spürte so deutlich, daß das **Gespent** schon drinnen
saß,(Stiller 278) 여기서 Gespent는 치음접미사를 가졌다.

Gemahl, (치음접미사를 가진) Gefährte.

4) 도구명사:

기저성분인 동사에서 의미하고 있는 행위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수단
및 도구를 나타낸다. 예컨대 Gebiss, Gebläse, Gehör와 같은 어휘는 'das,
womit etwas gebissen, geblasen, gehört wird'로 풀이될 수 있으므로 도구
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wie ich sie packe, lacht sie mit der ganzen Weiße ihres **Gebisses**.

(Stiller 54)

einen Kessel hat mein kühner Vater, ein mächtiges **Gefäß**, ein meilentiefes.(Edda 78)

Ein viertes kann ich, wenn in Fesseln man mir die **Gelenke** legt. (Edda 208)

Stiller hatte Hände wie Krallen, und es war Julika ... peinlich, daß er sie am **Gesäß** hielt. (Stiller 124)

Rathaus, wo Heines **Gespür** für die Verlässlichkeit der Herrschenden ... geschärft wurde. (Zeit 970425.57)

Unterdessen ist einer von den Zeughäuslern bereits zu einem **Gestell** gegangen, hat einen anderen Waffenrock herausgerissen, (Stiller 154)

Mein russisches **Gewehr** war tadellos. (Stiller 267)²²⁾

Geschmack, Getriebe.

관용어화:

Hinterher ... versuche ich umsonst, ihr lachendes **Gesicht** zu seheni.

(Stiller 173)

Gemächt, Gezäh(e).

2.2.2. 명사에서 파생된 명사

Gestreu, Gelumpe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저명사를 파생접환사 ge-+-e의 두 변이형 ge-+-e와 ge-+0에 의해 다시 명사로 만드는 조어현상으로 앞의 동사파생명사와는 달리 접미사 -e는 오늘날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나타날 경우 Gefilde처럼 대개 어간모

22) 기저성분을 wehren으로 보면 도구의 명사로 간주하나 명사 Wehr로 보면 집합명사로 간주할 수 있다.

음이 변하며, 그러나 접미사 -Ø의 경우에도 Gewölk처럼 종종 어간 모음이 변하고 원래 기저명사의 의미에 대한 집합을 뜻한다.

집합명사:

기저성분인 명사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의 전체를 나타낸다. 예컨대 Geäst, Gedärm, Geklüft, Gewölk와 같은 유형의 어휘들은 'die gesamten Äste (des Baumes), Därme (eines Tierkörpers), Klüfte, Wolken'으로 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기저성분이 명사이며, 따라서 명사에 접환사 ge-+-(-e)가 첨가되면 대개 집합명사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래 집합명사였다가 나중에 집합적 성질이 사라져 버렸고 기저명사와 파생어 사이에 근소한 의미차이가 있거나(보기: Stern - Gestirn, Wasser - Gewässer, Sims - Gesims, Trank - Getränke) 전혀 의미차이가 없어지고 또한 완전히 의미가 변해 관용어화되거나(보기: Geflügel, Gewitter, Gezücht) 했다. 동사파생명사에 비해 이 유형은 많지가 않다.

기저명사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

ich ... reiße so ein Sacktuch ab, ratsch, und wie erwartet, ... ein **Gebrösel** von trockenem Lehm, (Stiller 370)

Die Sehnsucht des Verbrannten steckte ganz in seinem **Gehirn**, ...
(Patient 125)

Am andern Tag kam er wieder ... und brachte Julika langsam dazu, so ein **Gerippe** sogar schön zu finden, (Stiller 114)

Weniger rühmtest du das Werk Högnis, als Sigurd vom Schlummer die **Gesippen** weckten: (Edda 269)

und Wälder verschwanden unter dem glühenden **Gestein**, (Stiller 47)

..., der beim großen Opferfest mit allerhand **Getier** gehenkt ist,(Edda 201)

Er hörte Meisen im **Gezweig** zwitschern.(Edda 318)

Gebein, Gerank.

기저명사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

- 접미사 -e가 나타나는 경우:

über dieser Zone liegt Orizaba auf dem Plateau, das die Lüfte aus dem **Gebirge** hat, (Stiller 37)

Die Bowery ... ist ein Viertel, wo auch die Polizei nicht mehr hingehet, **Gefilde** der Verlorenen, (Stiller 177), daß Exmoor das ideale **Gelände** war zur Ausbildung von Bomben- räumern. (Patient 202)

Gewände.

- 접미사 -e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Wie heißt der Baum, der da breitet über die Erde sein **Geäst**?

(Edda 136)

wenn Du ganz still bist, hörst Du die Mäuse im **Gebälk**, vielleicht auch Ratten,(Stiller 392) 기저성분 Balken.

Li Suli, die freundliche Busschaffnerin, die ... Omas aus dem **Gefährt** hilft; (Spiegel 970224.160) 기저성분 Fahrt.

Ein anderes Mal ..., sehe ich Schwäne, eine Flottille natürlicher Schwäne mit ihrem weißen **Gefieder** in der Sonne;(Stiller 80)

Wie heißen die Hunde, die hungrig laufen vor dem **Gehöft** umher?(Edda 137) 기저성분 Hof의 집합명사 형성시 치음접미사가 붙었다.

Das Zelt und das dunkle **Gehölz** umschließen sie. (Patient 140)

Wir fanden das Schloß Chillon mit seinem **Gemäuer** in der vormittäglichen Sonne sehr schön. (Stiller 414)

In Paris kam er ins Abteil, weckte mich, ..., und verstaute sein **Gepäck**, (Stiller 11)

über den Alpen steht lautlose Brandung des **Gewölkes**, ein leuchtendes **Geschäum**.(Stiller 351)²³⁾

23) Geschäum의 경우 Schaum의 집합명사로도 schäumen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mit dem Innersten unseres **Gestirns**.(Stiller 48)

Denn **Gesträuch** wächst und starkes Gras auf dem Weg, den kein Wanderer geht.(Edda 167)

In der Kapelle geht er an dem verbrannten **Kirchengestühl** vorbei zur Apsis, wo ... (Patient 310)

Bis dahin war man davon ausgegangen, daß dieses **Gewürm** und Geschmeiß aus Dreck entstehe, (Zeit 970425.73)

Geäder, Gebrüder, Gebüsch, Geschwister, Gespänge, Gestänge, Gesträuch, Getäfel, Getränk.

관용어화:

- 기저명사가 현존하는 경우:

Aber Sie glauben doch nicht im Ernst, daß das schweizerische Bürgertum ... keine **Gefälle** habe zum Faschismus, wenn ... (Stiller 198)

Plötzlich krächte irgendwo ein Hahn, kurz darauf ... ein dritter, schließlich krächte ein ganzer **Güterzug** voll Geflügel, das hier auf den Morgenmarkt wartete.(Stiller 202) Flügel의 집합명사인 이것은 가정에서 기르는 날짐승 전체(Haustiere, die Flügel haben)를 가리킨다.

Café und Brioches, anschließend Bummel durch die großen Hallen voll **Gemüse** und Fisch- (Stiller 285)

ihr weibliches **Gemüt** aber verargte es ihm, (Stiller 223)

„Ich bin dauernd auf leere **Gehäuse** gestoßen, wo ich auch gegraben habe“, sagte der Pionier. (Patient 289)

Gefach, Gehege, Gerät, Gewürz.

- 기저명사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

während anderswo ein lautes **Gelächter** platz.(Stiller 28) 기저성분 mhd. lahter = lautes Lachen

Stiller hockte wortlos auf dem **Geländer** ihrer Veranda, (Stiller 143)

기저성분 mhd. lander = Stangenzaun

und siehe da, sie hatte ihr **Genick** nicht gebrochen.(Stiller 287)

기저성분 mhd. nicke

viel Kleinode gab's da, ... reiche **Geschmeide** und rotes Gold.
(Edda 234) 기저성분 mhd. smîde=Metall.

wie ich so mit meinen Stiefeln durch das dürre und oft stachlige
Gestrüpp stapfte, plötzlich stehe ich vor einem Schlund,(Stiller 157) 기저

성분 mhd. struppe = 'Buschwerk'

Gekröse, Gesinde, Geselle, Gestade.

3. 결론

파생어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접사에 의한 조어는 파생어로 간주하며, 따라서 파생어의 범주에는 접두파생어, 접미파생어와 접환파생어가 속하게 된다. 접환파생어는 기존에 있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동시에 불연속 형태소로 기저성분 앞과 뒤에 조합하는 파생어인데 명사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접환사 ge-+-e가 있다.

이 접환사는 동사와 명사를 기저성분으로 하여 파생명사를 형성하며, 접두사의 생략은 기저성분에 비분리접두사를 가진 동사에 있어서 ge-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간혹 나타나나 그렇게 많지가 않으며 기저성분이 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ge-를 사용한다. 그에 반하여 접미사 -e는 오늘날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간혹 이 파생명사를 접두사조어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접미사의 생략으로 간주하여 - \emptyset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 - \emptyset 가 수적으로 많은 점이 있어서 이것을 기본형으로 보려는 경향도 없지 않으나 형태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e의 유무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필요할는지 모른다. 지금까지는 몇가지 -e의 유무에 대해 기저성분의 음운구조나 의미의 차이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평가라고 아직은 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파생접환사 ge-+-e에 의한 파생명사는 기저성분이 동사인가 또는 명사인가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 기저성분에 미치는 기능 및 의미에 따라 하위 구분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분류하게 되었다.

1. 동사파생명사:

- 1) 추상명사: Gefecht, Geräusch, Gestöber
 - 반복 및 지속성: Geflatter, Geschnaube, Getöse,
 - 부정적 평가: Geheul, Geklapper, Getue,
- 2) 결과 및 산물명사: Gebäck, Gedichte, Gewebe,
- 3) 사람 및 사물명사: Geleit, Gehänge, Geröll,
- 4) 도구명사: Gebiss, Gefäß, Gestell,

2. 명사파생명사

- 집합명사: Gebein, Gebilde, Gebüsch, Gefieder

Literaturverzeichnis

1. Primärliteratur

- DUW: Dudenverlag 1996. 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3. neu- bearb. Aufl. Mannheim.
- Edda: Die Edda. Götterdichtung, Spruchweisheit und Heldenge- sänge der Germanen. Übertragen von F. Genzmer. München 1997
- Patient: Ondaatje, M. 1997. Der englische Patient. Roman. Übers. v. A. Dormagen aus Englischem. München (dtv8404).
- Spiegel (online): Der Spiegel. Hamburg.
- Stiller: Roman von Max Frisch. Frankfurt a.M.: Suhrkamp 1974
- Zeit: Die Zeit. Hamburg.

2. Sekundärliteratur

- Duden-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1998, 6. neubearb.

- Auflage. Bearb. von P. Eisenberg u.a.
- Erben, J. 1983. Einführung in die deutsche Wortbildungslehre. 2. Aufl. Berlin.
- Fleischer, W. 1975. Wortbildung der deutschen Gegenwarts- sprache. Tübingen: Niemeyer.
- Fleischer, W./Barz, I. 1995. Wortbildung der deutschen Gegen- wartssprache. 2.Aufl. Tübingen: Niemeyer.
- Götze, L./Hess-Lüttich, E. 1989. Knaurs Grammatik der deut- schen Sprache. München: Knauer. S.296ff, 305ff.
- Handler, P. 1993. Wortbildung und Literatur. Panorama einer Sti- listik des komplexen Wortes. Frankfurt/M.
- Hansen, S./Hartmann, P. 1991. Zur Abgrenzung von Komposition und Derivation. Trier.
- Meinecke, E. 1996. Das Substantiv in der deutschen Gegenwarts- sprache. Heidelberg. S.339-461: Die Derivation des Substantivs.
- Motsch, W. 1999. Deutsche Wortbildung in Grundzügen.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Müller, P.O. 1993. Substantiv-Derivation in den Schriften Albrecht Dürer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Schippan, Th. 1992. Lexikologie der deutschen Gegenwarts- sprache. Tübingen.
- Vater, H. 1996. Einführung in die Sprachwissenschaft. 2. Aufl. München: Fink.
- Wellmann, H. 1975. Deutsche Wortbildung. Zweiter Hauptteil: Das Substantiv. Düsseldorf: Schwann, S. 107ff.
- Weinrich, H. 1993. Text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Mannheim u.a.: Dudenverlag, S. 913: 9. Wortbildung.
- Wimmer, R.(Hrsg.) 1997. Wortbildung und Phraseologie. Tübingen: Narr.

Zusammenfassung

Ableitungszirkumfix ge-+-e

Cho Kyun (Sungkyunkwan Uni.)

Es gibt verschiedene Auffassungen über die Formulierung der Ableitung, wobei nur die Suffixbildung als Ableitung einerseits gelten soll oder andererseits die Suffix- und Präfixbildung zusammen als Ableitung gelten sollen. Hier wird die zweite Auffassung als Ableitung angesehen und danach gehört auch die Zirkumfixbildung zur Ableitung.

Das einzige Zirkumfix, mit dem die Substantive abgeleitet werden, ist ge-+-e und dessen Suffix kann gegebenenfalls nicht explizit ausgedrückt werden.

Diese Substantivableitung wird zuerst nach der Wortart der Basis und dann nach der Funktion oder Bedeutung folgendermaßen klassifiziert:

1. Deverbale Substantive:

- 1) Abstrakta: Gefecht, Geräusch, Gestöber
 - Wiederholung bzw. Dauer: Gedröhn, Gekreisch, Getöse
 - Pejorative Bewertung: Gejammer, Gerede, Geschreibe
- 2) Resultat bzw. Produkt: Gemälde, Gewebe, Gewucher
- 3) Person bzw. Sache: Gedränge, Gewächs, Geröll
- 4) Instrumentalia: Gebläse, Gefäß, Gestell

b) Denominale Substantive:

Kollektiva: Gehirn, Gelände, Gerippe